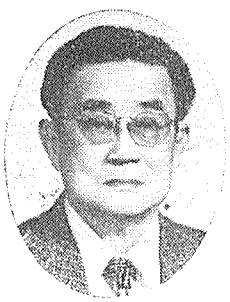
科学院은 크게 発展할 수 있다



朴達祚 院長·긍지와 相互協力 强調

우리나라 高級 科學 頭腦養成을 위해 特殊理工系 大學院으로 設立開院한 韓國科學院. 頭腦産業의 開發등으로 産業發展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出帆한지 이제 11月 17日로 2個月이 됐다.

따라서 우리 科學界는 韓國科學院이 設立 目的대로 잘 運營되고 있으며 당초의 期待에부응하여 科學韓國의 一翼을 충분히 담당하게 될 것인지 關心이 크다.

韓國科學院 開院을 前後해서 몸담아 心血을 기울였으며 現在에도 初創期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터전을 굳히는데 苦心하고 있는 朴達祚院長을 찾아 그의 말을 들어본다.

이미 世界的인 碩學으로 국내외에 많이 알려진 朴院長은「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고 겸손하게 첫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한 育兒食을 다하는데 最善을 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잘 자랄 것이다」고 했다.

韓國의 天才가 여기서 탄생할 것으로 믿으며 또 天才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다만 初創期이기 때문에 한두가지 隘路가 있으나「긍지를 가지고 協力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뜻을 이루게 될것」이라고 앞을 내다봤다.

그러나 한두가지 精神的 결점은 고쳐져야 하겠고 本人으로서는 納得이 안간다는 것.

「우선 긍지가 없어요. 또 애착심도 없고 기여도에 대한 존경심도 부족해요」

7旬이라면 믿기 어려운 溫和한 얼굴이 굳어진다. 그러면서 몇가지 예를 들어 풀이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데도 만든 사람은 공 들여 만들어요. 하지만 電工은 이 공들여 만든 테이블을 스스럼 없이 밟고 올라서서 전기를 고치거든요」

도무지 理解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 자세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

「기존 大學은 各自 지닌 전통이 있어 새로운 연구기관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科學院이 發足하게 되자 一部 旣存大學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일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며 훌륭한 科學院으로 育成發展시킬 수 있다」고 自信만만한 표정이다.

朴院長은 또 特許制度 運用에 언급「과학기술은 特許制度로 保護돼야 합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美國, 日本 등 强大國들이 이 特許制度運用의 妙를 살려 오늘의 富를 이루게 됐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급하게 서둘 필요까지는 없으나 앞을 내다보며 만반의 준비태세는 갖춰야 한다고.

「우선 충분히 훈련된 人的資源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專門知識을 가진 사람은 人事異動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專門家의 確保가 시급함을 앞세웠다.

「國際機構에 加入하는 時期는 문제가 아닙니다. 莫大한 資金이 投入돼야 하는것이 向題지요」

資金의 뒷마침만 있다면 지금도 國際社會에서 어깨를 겨누고 대결해 갈 수 있다고 호언 장담이다.

그의 持論은 特許法이 普通 그 有効期間 동안 研究에 消費된 費用의 最少 2倍의 利益을 가져온다는 것.

「美國의 경우만 해도 제너럴모터즈, 제너럴 엘렉트릭, 듀퐁 IBM, 제록스, 폴리로이드 등의 회사가 世界屈指의 企業體가 된 것도 美國 特許制度의 德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時點에서 多樣한 特許制度間의 相異性을 比較檢討해 보고 韓國이 將次 外國과 가질 特許關係에 있어 궁극적으로 어떠한 立場을 고수해야 할 것인지 吟味해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物質의 合成과 使用特許 分野에 대한 特許權 認定時期를 최대한으로 지연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

「日本도 今世紀에 다른 先進國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지만 이 두 分野의 特許權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이 두 分野의 特許權을 外國人에게 認定한다면 當利에 밝고 硏究面에서 앞장선 外國의 企業들이 판을 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能率的인 特許權制度를 樹立해야 한다는 것이다.

「現制度를 電子計算 組織體系로 轉換시켜야 합니다」

만약 파리協定의 加盟國이 될려고 한다면 많은 額數의 經費도 들지만 우선 體制부터 改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人的構成에 있어서도 一大革新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美國과 같이 能率的인 特許行政을 遂行하려면 많은 科學者, 技術者, 飜譯家및 言語學者들이 절대로 必要하다」고 역설했다.

만약 이렇게 能率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制度로 改善하지 않고 벨지움과 같은 制度로 나가면 韓國特許의 法的根據에 正面挑戰하는 法庭訴訟이 많아진다는 것.

「韓國의 지금 處地로서는 産業式에서 可能한 모든 利益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有利한 立場을 確保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問題點을 사전에 解決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前에 特許協定에 加入한다거나 日本과의 協定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끝을 맺었다.

<편집부>